

■ 괴운(槐雲) 칼럼



장수(長壽)시대 삶의 지혜와 수유칠덕(水有七德)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인간은 누구나 장수(長壽)하길 원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2월 12일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수 생존자인 일본 교토의 기무라 지로에몬(木村 次郎右衛門)씨가 11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공인된 최장수자는 1997년 122세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 여자 잔 칼맹 (Jeanne Calment)이다.

생명과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2045년에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130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동인문화원의 손기원 선생은 장수시대를 맞는 삶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하나는 매사에 스스로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이다. 장수시대를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늘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다.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하여 행하고 그 밖의 것은 원하지 않는다(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는 분수(分數)에 맞는 삶, 즉 안분지족(安分知足)이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천지의 자연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음양(陰陽)의 논리에 따라 수많은 변화를 거듭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늘 좋은 상황일 수만 없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넉넉한 양(陽)의 시대가 있는 반면 어둡고 힘든 음(陰)의 시대도 있다. 서로 교차하며 변화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양의 시대와 음의 시대를 대처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셋째는 사람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구축이다. 넷째는 곤경에 처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섯째

는 진리 학습과 명상 수련으로 늘 상황에 맞고 바른 중정(中正)의 마음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중용에서 이른바 '늘 편안하게 살면서 천명을 기다리는 '거이이사명(居易以俟命)'이다.

한편 노자(老子)의 '도덕경 8장'에서 인생은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인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는 '수선리만물이부정(水善利萬物而不爭)',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는 '처중인지소오(處衆人之所惡)',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는 '고기어도(故幾於道)'라고 했다.

그리고 인간수양(人間修養)의 근본을 물이 가진 일곱 가지의 덕목인 '수유칠덕(水有七德)'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謙遜)이요, 둘째는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智慧)요, 셋째는 구경물도 받아주는 포용력(包容力)이요, 넷째는 어떤 그릇이나 담기는 용통성(融通性)이다. 다섯째로 바위도 뚫는 끈기와 인내(忍耐)요, 여섯째로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勇氣)이며, 일곱째로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大義)라고 하였다. 따라서 물은 유연하면서 무서운 힘을 갖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남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인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안동 권문들도 장수시대를 맞는 삶의 지혜와 선의 경지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노자의 수유칠덕(水有七德)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수용 대총회 부회장(좌익공파 38세)

통일역사관의 기본 입장

3단계 완성의 법칙

모든 성장이나 발전은 모두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법칙을 섭리에 적용하면 1회에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차까지 연장하고 3차에서는 기어이 완성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예컨대 아담이 말씀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2 아담으로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씀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3 아담으로서 재림주를 감람시켜서 기어이 뜻을 이루게 하신다. 세계대전도 3차로서 완전히 끝나지 다시는 전쟁은 없게 되고 무신론 사상도 3차 인본주의운동인 공산주의 단계에서 완전히 유신론 사상운동에 폐하고 만다.

6수 기간의 법칙

제1 아담은 우주 창조 개시 후 6수 기간 후에 지음받았다. 마찬가지로 제2 아담도 6수 기간(6세기)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그 감람의 준비를 개시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서 불신앙을 회개시킨 것, 또 환경 복구를 위해서 BC 6세기경부터 그리스 문화를 발달시키기 시작하신 것, 그리고 동양 사회에 기원전 6세기경에 석가, 공자 등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출현한 것 등은 6수 기간을 걸어놓고 메시아 강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재림 때에도 20세기의 메시아 강림을 6수 기간을 앞에 놓고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이 태동하였던 것이며 4세기를 앞에 놓고 본격화되어서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 책임분담의 법칙

아담 해와의 성장에 책임분담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복귀섭리에 있어서도 섭리적 인물들에게 일정한 책임분담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섭리적 인물들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는 뜻에 맞도록 책임분담을 다하면 섭리는 새로운 단계로 진전되지만, 만일 그 인물이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인물은 중심으로 이루고자 하였던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고 하늘의 뜻은 연장되게 되며 일정 기간 뒤에 새로운 인물을 다시 소명하여서 동일한 섭리를 시행 한다.

인류 역사가 최악 역사로서 오늘날까지 6000년이나 연장되어 온 것은 섭리적 인물들이 계속해서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세례요한이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다.

악의 사상인 공산주의가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것도, 지금도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산업혁명 이후의 기독교가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다.

현시점의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들이 크게 각성하여서 하늘 뜻에 합당하도록 책임분담을 다하여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할 뿐 아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자연 굴복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주종친회 임원회의 개최

영주종친회(회장 권중수)는 7월 17일 권영창 대총회 회장과 권무탁 자문위원, 권기호, 권준탁, 권영표, 권종범, 권영대, 권오중 등 원로고문, 권중수 영주종친회장과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권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에 영주청·장년회가 주최하는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에 영주종친회 회원들이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격려사에서 "영주종친회도 대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주위 식수사업에 자신의 명찰 달아주기와 홍보 구획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에 경주 윤곡서



원을 방문하여 시조 태사공을 참배할 것과 정. 장년회 체육대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영주 읍면동 종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국의 안동권씨

족친들이 영주를 방문하여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권중수 영주종친회장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및 제6.7대 회장 이취임식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및 제6.7대 회장 이취임식이 7월 9일 11시 안동시에 위치한 목향에서 권명달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태형 안동능곡회, 권광택 청주청장년회장, 권정호 서울청장년회장, 권응목 전국청장년협의회 사무국장, 권우경 안동능곡회 사무국장, 권영일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등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원을 비롯하여 권영창 대총회 회장과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갑현 편직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청장년협의회 제7대 집행부는 신임회장은 안동능곡회 권태형 회장, 사무국장에는 안동능곡회 권우경 사무국장, 감사에는 권응목 울산청장년회 전 사무국장이 각각 선임되었다. 권태형 신임 회장은 그동안 전국청장년협의회를 이끌어 준 제6대 집행부 권명달 회장과 권응목 사무국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제34회 체육대회는 영주에서 개최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나, 2026년 제35회 개최지는 열띤 토론을 거쳤음에도 결정하지 못했다.

전국적인 행사라 비용이 부담된다면 행사 규모와 행사내용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반드시 이어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앞으로 1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동안 심사 숙고하여 체육대회를 이끌어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역대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는 1989년 안동능곡회(회장 권영상) 주관으로

안동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영주, 영천, 경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안강, 제천, 포항, 영덕, 안동능곡회, 마산 창원, 예천, 문경, 원주, 의성, 안동청장년회, 경주, 강릉, 청송, 영천, 광주전남, 영주, 대전, 청주청원, 대구, 함천, 서울, 부산, 울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에는 안동권씨의 분향 안동에서 제33회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급기야 대회 유지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다. 안동권씨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 청장년회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날 행사에는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이 축하 화환과 김치 40박스, 권태형 안동능곡회장이 백진주쌀 5kg 40포대를 전조해주었다. 권응목 전국청장년회 전 사무국장

서울지역종친회 복다림 안내

안동권씨 종친 어르신과 회원 여러분!

서울지역종친회에서는 종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복다림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서로 서로 연락하여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12시

♣ 집합장소 : 마포구 공덕동 우가촌

◆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4년 8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40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40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4년 8월 18일(일) 10시(시간엄수)
♣ 집합장소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3번 출구
♣ 산 행 지 : 수락산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2024년 8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

<2024년 7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 6.28. ~ 7.29.
총 납부자 28명
총 840,000원

Table with 6 columns: (이름순), Amount, and Unit. Lists names and amounts for various branches like Gyeongsang, Gyeongju, and Gyeongsang-do.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대총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